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이사인도 상담단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 ‘自治 일꾼’ 선택의 날 밝았다



### 제4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 시작...광역단체장 밤11시계 당락 운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31일 오전 6시 광주·전남지역 1천209개 투표소를 비롯 전국 1만3천1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장·전남지사를 비롯,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62명, 광역비례 8명, 기초의원 270명, 기초비례 41명 등 모두 4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등 모두 3천867명을 뽑는다.

여야 각 당과 무소속 후보 등 광주·전남지역 출마자는 1천206명으로 광주는 3.2대 1, 전남은 2.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출마자는 1만2천194명으로 3.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광주·전남 27개 개표소를 비롯 전국 259개 개표소에서 부제자 투표함부터 시작, 각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당락의 운과는 시·도지사의 경우 밤 11시계,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인 자정 전후에 대략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최종 득표율을 집계는 다음날인 1일 새벽 3~4시께 완료될 예정이다.

당선증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시·도 선관위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서 1일 중 각각 교부한다.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간다.

광주·전남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1995년) 70.5%, 제2회(1998년) 56.7%, 제3회(2002년) 54.0% 등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

세로 특히 광주는 전남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저조했다. 지난 2002년 전국 평균 투표율은 48.8%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심의 소재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 등 ‘정치권 빅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3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유권자가 주인...투표합시다”

#### 손지열 중앙선관위원장

손지열 중앙선관위원장은 5·31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30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투표포세어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손 위원장은 “치열했던 선거운동은 오늘로 막을 내리고 유권자의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지역이나 학연을 따지지 말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누가 진정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최진민기자 man21@

## 日반출 조선왕조실록 돌아온다

### 도쿄대 소장 47책 7월중 규장각에 반환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나라에 반환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30일 “도쿄(東京) 대학이 소장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五臺山) 사고(史庫·역사서)를 보관하던 곳) 47책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는 데 양교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1일 오전 서울대 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축사

에서 이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약 6주 뒤 도쿄대 귀중서고에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총 1천 893권 888 책)은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 등 4곳에 20세기 초까지 분산·보관돼 왔으며 이 중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초대

조선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오대산 사고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도쿄대 도서관 귀중서고에 중중대 왕실록과 성종실록 등 47책이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확인된 이후 양국간 반환 협상이 진행돼 왔다.

서울대는 31일 오후 1시 이태수 서울대 대학원장, 김영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반환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도쿄대도 같은 시각에 부총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광주 ‘사랑의 仁術’ 다시 印尼 갑니다

<인도네시아>



강진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욱 아카르타 지역으로 떠나는 광주 기독교병원 의료진이 30일 병원 4층 예배당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병호(자원봉사자) 씨, 김은미·조애하·송지원 간호사, 임준섭(신경외과) 의사, 송경의 병원장, 최홍수 단장(정형외과), 장일호 약사, 신창준(내과)·김종권(소아과) 의사, 서민정 광주일보 기자.

/위직량기자 jwvi@kwangju.co.kr

### 본사-광주기독병원, 의료봉사단 파견

광주일보와 광주기독병원이 인도네시아 강진 피해지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친다.

광주일보와 광주기독병원은 30일 광주시 남구 기독교병원 4층 예배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욱 아카르타(Yogyakarta·족 자카르타)의 표기를 영어식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표기로 바꿈)에서 부상

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봉사단은 31일 오후 3시 20분 출국, 인도네시아 강진(強震) 진원지인 욱 아카르타에서 6월 5일까지 의료 구호활동을 벌이게 된다.

봉사단은 광주기독병원 최홍수 과장(정형외과)을 단장으로 임준섭(신경외과)·김종권(소아과)·신창준(내과)·박정욱(일반

#### ■의료봉사단 구호활동 지역



의) 의사, 장일호 약사, 조애하·송지원·김은미 간호사, 자원봉사자 이병호·조현미씨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봉사단에는 광주일보 사회1부 서민정 기자가 동행, 의료봉사단의 현지 활동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욱 아카르타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곳으로, 구호품 부족과 함께 열악한 배급여건 때문에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규장 건강강좌 오늘 오후3시30분 롯데백화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남골공원 특별분양!

1만평에 달하는 700여평의 명당! 호남최고의 명당! 호남최고의 명당!

60% 은정분양

분양문의: (062) 524-1100